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 **윤공희 전 가톨릭 광주 대교구장**

“그는 박해 이겨낸 참 신앙인 이었다”



사제와 신자로서, 반독재 투쟁 동지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윤공희 전 광주 대교구장은 18일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훌륭한 신앙인이자 신념을 위해 위협에 굴하지 않았던 정치인 김대중을 회상했다.

-정치인 김대중을 알게된 동기는?
▲처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본 것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64년 4월쯤 이효상 국회의장(제6,7대 국회의장)공관에서 천주교 주교들과 가톨릭 신자인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자리였다. 서로 상견례하는 자리였는데 그날 김대중 의원이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끌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모양인데 의원 발언을 통해 무려 5시간 이상을 끄는 연설을 했다. 그 내용이 어찌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 하나가 내용이 훌륭한 내용이었다는 거다. 그래서 당시 참석자들이 웅변가라고 김 전 대통령을 칭찬했다.

-그때 김대중에 대한 느낌은?
▲활력 넘치는 좋은 정치인인가보다 생각했고, 더욱이 신자로서 소개를 받았으니까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유능하고 젊은 정치인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고 참 희망적인 일이라고 생

각했다.

-80년 김 전 대통령이 군사정권으로부터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당시 광주대교구 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교황청이 구명운동을 직접 했다는 사실은 광주일보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당시에는 외교적인 활동을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전혀 모르 고 있었다. 하지만 80년 당시 미사 강론을 통해 사제를 포함한 모든 5·18관련자들에게 대해 사면 해 줄 것을 수차례 당국에 호소했던 기억이 난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정치인으로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잘 지켜왔다.

-80년 당시 고 김수환 추기경과 윤 대주교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만나 사면을 건의했는지?
▲전두환씨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 일이어서 우리는 듣는 입장이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5·18 관련자들에게 대한 석방과 사면을 요청하는 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1987년 6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발족당시 참석된 윤과 문익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대주교께서는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아마 내가 한국 천주교 정경위 주교로 있었을 당시 상황 같은데 당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고문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만남은 있었는지?
▲오히려 만나는데 더 조심스러웠다. 일부에서 천주교 신자 대통령이 됐다고 자꾸 만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볼 수 있어서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덜 만났던 것 같다. 오히려 야당 시절 박해받던 시절에는 마음 편하게 만났다. 그런데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이후로 김대중씨가 공산주의자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 신자인 고위 공무원이 김대중 선생을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굉장히 놀랐다. 알마라 세뇌가 되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인간 DJ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탕이 같은 신앙인으로서 정치하고 이런 것도 신자로서 믿음에서 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리라 생각한다.

/김대중기자 bigkim@kwangju.co.kr

바르게살기 광주서구협, 태극기달아주기 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서구협의회(회장·김기동)는 전주인 서구청장과 함께 최근 광복절을 맞아 주택가와 차량에 태극기 달아주기운동을 펼쳤다.

광주 북구 백일홍회 장학금 3백만원 기탁



광주 북구청 간부 부인회인 백일홍회는 최근 북구청(청장 송광운)을 방문, 그동안 모아왔던 장학금 3백만원을 (재)광주북구 장학회에 기탁했다.

“도시 재생은 친환경·문화로 가야”

광주일보 윤현석 기자 ‘도시경제와 산업살리기’ 번역

광주일보 사회부 윤현석 기자가 지역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의 ‘도시재생을 생각한다’ 기획 시리즈 중 4권인 ‘도시경제와 산업살리기(도시출판 한울)’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탈공업화와 세계화 속에서 급변하는 도시 경제 및 산업 구조 및 그로 인한 도시민의 생활상을 설명하고 일본은 물론 유럽 등 세계 각 도시들의 선진사례를 들어가며,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도시경제와 산업을 재



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이나 건설 등이 아닌 공동체와 문화, 환경, 생활양식, 인제 등을 주제로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이나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 등 최근의 시대적 조류도 거론하면서, 이 같은 명제를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진 도시들이 어떻게 적절히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있다.

이 책에는 윤 기자 외에 나주몽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류영국 공간정보연구소 소장, 이영석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원저는 진노 히코(神野直彦) 도쿄대 교수 등 일본 도시 전문가 8명이 작성했다.

한편 ‘도시재생을 생각한다’ 기획시리즈는 제1권 ‘도시란 무엇인가’에서 제 8권 ‘글로벌화시대의 도시’ 까지로, 도시와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다뤄 일본에서 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윤 기자 등은 이 8권을 모두 번역해 출간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이병훈 단장 전남대서 박사학위 받는다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현장경험과 연구 성과를 집약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병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논문으로 26일 전남대학교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 단장은 이 논문을 통해 광주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중심형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같은 결론에는 그가 해외 문화도시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경제·환경·사회적·문화적 속성이 라는 문화도시 지속가능성의 핵심 개념들이 토대가 됐다.

국내 전문가 설문문을 통해 이들 각 개념들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중심형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국장·국민장 매뉴얼 만들어야”

안우환 을지대 교수 제안

“지난 5월 치러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은 원칙이 없고, 전통 상례(喪禮)에 어긋났습니다. 향후 매뉴얼을 만들어 보완해야 합니다.”

안우환(장례지도학) 을지대 교수는 18일 동국대 생사학의학과 주최로 이 대학 만해관에서 열린 ‘국민장의 평가와 개선 방향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중심으로’라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장의위원회가 상세한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10여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들이 주도하고 있고, 국장이나 국민장에 관한 다양한 매뉴얼이 없다 보니 일부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급하게 장례 절차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고객에 정확한 정보 안내하는 진심이 통했죠”

114 상담원 최고의 목소리에 전남본부 진창희씨

목소리가 가장 좋은 114 안내원에 생활정보기업 코이드(대표 노희창)의 전남본부 진창희(여·28)씨가 뽑혔다.

코이드는 지난 7월부터 한달간 지역별 우수 상담원을 추천받고, 각 본부의 상담품질관리자들의 평가를 통해

최고 점수를 받은 상담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보이스 퀸(Voice Queen) 선발대회를 열었다.

선발 평가 체크리스트로는 ‘고객의 말을 놓치지 않고 경청했는가?’, ‘정감 있고 편안한 음성으로 진행했는가?’, ‘고객의 문의 사항을 신속하



게 처리했는가?’ 등 10여 개의 항목이 적용됐다. 그 결과 2천 500여 명의 114 상담원 중 최고의 보이스 퀸으로 진창희 상담원이 선발된 것.

진창희 상담원은 “고객과의 짧은 10여초간의 만남이지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진심이 잘 전해진 것 같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김필성기자 kps@kwangju.co.kr

정명훈·장근석 적십자사 친선·홍보대사 위촉

지휘자 정명훈(사진 오른쪽)씨와 영화배우 장근석씨가 18일 각각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사진 가운데)의 ‘친선대사’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적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동 본사에서 유종하 총재가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두 사람은 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서약서를 건넸다.

정명훈씨는 이미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탤런트 이순재씨와 더불어 앞으로 2년간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구호·봉사활동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연남뉴스



귀순 여배우 김혜영, 김성태와 11월 결혼

귀순 여배우 김혜영(35)과 배우 김성태(38)가 11월 2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18일 김성태의 소속사인 스타버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연극 ‘홍도야 울지마라’에 함께 출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1988년 귀순한 김혜영은 2002년 10월 당시 군의관이었던 이모씨와 결혼했으나 3년 만인 2005년 10월 이혼했으며 드라마 ‘덕이’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등에 출연했고 가수로도 활동했다.

김성태는 영화 ‘피아노 치는 대통령’과 ‘강적’ 등에 출연한 배우다.

/연남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축

▲김영진·오명주씨 장남 차욱군 최광삼·이복순씨 장녀 솔이양(광주 여대 기획조정처)=22일(토) 낮 12시 메리어트웨딩홀 1층(사파이어홀)

▲윤무룡·이명옥씨 장남 한솔(강릉 주문초등학교)군 박정중(구진영 스튜디오)·이경희(포토메셀)씨 장녀 진영(강릉 주문초등학교)양=9월 12일(토) 오후 2시 강릉 미앤지웨딩홀 컨벤션센터 1층(아름다운홀) 피로연 일시 22일(토) 오후 12시 30분 광주 서남교회 연회장 1층(010-5619-4747)

동창·동문회

▲북성중 5회 동창회(회장 이승우) 월례회=20일(목) 오후 6시30분

대인동 흥백, 062-228-3382.
▲조선대부속고등학교 제20회 동창회(회장 임성기)=20일(목) 오후 6시30분 백운동 모아산부인과 옆 대나무집, 062-671-8453.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 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9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호심도서관 5층, 수백·나경·임향문·지도상명당 등 이론과 현장 제시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치료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자비선원 명상 무료 지도=학생, 주부, 직장인,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는 분, 062-228-770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모집

▲사단법인 효사랑넷 봉사단=뜸

교육에 관심있는 회원 교육생 모집. 매주 금요일, 062-369-1230.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자연건강요법(오행식사, 기운동, 생활명상) 수강생 모집=9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주말반(오전 10시~12시)·야간반(오후 7시~9시) 062-230-7700~2, 010-6271-847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체교정 자격증반 모집=근육마사지, 수기 요법으로 소생술(카이로프랙트) 교육기간 9월 10일~12월 17일(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1일까지 평생교육과학과에서 접수, 062-670-2167, 010-6426-5905.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문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시민, 매월 24일 월례회 및 문화답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지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제교육(한글과정), 초등·중

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을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치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오후 운동장 서강고 운동장, 017-656-3431.
▲한마을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풍과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기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 =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 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부음
▲한상운씨 별세 국현·민현·영현·경우씨 부친상=발인 20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복달씨 별세 양한준·한배·한식·점순·정남·이성재·성임씨 모친상=발인 19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양호정씨 별세 이새롬·지원씨 모친상=발인 19일(수) 화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두번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선진국형 장례시스템 프리드 현대종합상조. 가피콜리 1566-4499